

광주시-민주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 구성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연말까지 의원 200인 서명 추진 현안 법안 3건 연내 신속 처리·국비 확보 등 협력키로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동참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본부'를 구성해 여야 국회의원의 주도의 개헌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병훈(동남울)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송갑석(서구갑)·윤영덕(동남갑)·조오섭(북구갑)·이형석(북구울)·이용빈(광산갑)·민형배(광산울)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발족하고 오는 9월 개헌안 발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회의원 200인 이상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5·18과 관련된 12개의 산발적인 광주시 조례는 내년 5월까지 하나의 통합 조례로 정비한다.

광주시 주요 현안을 담은 법안 3건도 연내 신속 처리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현정사상 최대 의원인 261명(8월 17일 기준)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광주과학기술원법'을 조속히 개정해 광주 인공지능(AI) 영재고등학교 설립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AI집적단지를 활성화하고 AI 2단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기관 지정 조항을 포함한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인공지능·미래차 등 광주의 미래 산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주요 사업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정적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다음달 11일에는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국가재정도 어렵지만 지방재정은 더 어려운 실정이라서 절박한 마음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률안이 신속히 제·개정되고 내년 광주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힘을 모으자"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과 여야 정치 상황 때문에 국비 확보가 예년보다 더 어려워진 상태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국비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1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역국회의원들과 2024년 국비확보를 위한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실감콘텐츠산업 육성 '속도'

GCC,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지난해 개관한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wangju Content Cube·GCC)가 기술 개발과 제작 등 전문인력 양성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GCC는 올해부터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취업 지원, 인공지능·콘텐츠 융합 창작 랩 사업 등을 추진하며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CC 2층에 등지를 틀 예정인 아시아문화기술 실증센터는 총 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

GCC는 취업 연계(100명), 산학 연계(200명) 과정을 통해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현장 실무 교육, 취업 지원 활동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콘텐츠 융합 창작 랩은 인공지능과 콘텐츠를 융합한 기

술, 작품의 사업화를 지원해 원스톱 창·제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GCC는 10월 지역 관광명소, 역사자원 등을 배경으로 한 실감 콘텐츠 셀프 스튜디오 등 체험 행사도 연다. 개관 1주년인 11월에는 실감형 촬영기술과 확장현실 콘텐츠 등 대규모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 포럼도 개최한다.

현재 GCC에 입주한 기업은 11개로 입주율은 85%가량이다. 이 가운데 지역 선도기업인 위치스는 1층에서 체험 공간을 운영 중이며 뽀로로를 만든 스튜디오게일, 가상·증강현실 게임 콘텐츠를 북미 등으로 수출 중인 지니소프트, 위딧 등이 입주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공사 중인 공동주택 안전강화

35개 단지 931건 개선 조치...단지별 평균 21.5건 지적

전남도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단지 한 곳당 평균 2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나와 전남도가 기초·골조·사용검사 전 등 모든 단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사 중인 공동주택 35개 단지에 대해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931건을 개선 조치했다. 추가로 공동주택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22개 단지에 대해 295건을 개선 조치하는 등 을 상반기에만 57개 단지에서 1226건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단지별로 평균 21.5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무량판구조 및 콘크리트 강도 미확보 등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사 중인 모든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품질 향상 및 품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계획, 시공, 안전, 구조, 토목 등 10개 분야 민간전문가

로 점검단을 구성해 공동주택 품질점검에 나섰다. 품질점검 시기는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구조체 시공 중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까지로 나눠 실시한다. 전국에서 드물게 기초단계에서도 품질점검을 한다.

또 건축구조기술사 등 7개 분야 민간전문가 70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건축안전전문단과 함께 품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도 하는 등 건립 중인 공동주택을 빠짐없이 관리·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 설계·시공상 철근 누락으로 드러난 만큼, 부실공사 근원을 뿌리 뽑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공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에너지기업 태국 진출 '시동'

道, 방콕서 '에너지워크' 개최...7개 기업 참여 수출 상담

전남도가 18일까지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2023 한국-태국(KOR-THA) 에너지워크'를 개최해 전남지역 에너지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에너지워크는 전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지역사업개발원,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에너지밸리사업개발원이 주관했으며 도내 7개 에너지 기업이 참여했다.

태국은 2037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인 모도 인텔리전스(Modor Intelli-

gence)에서는 태국 태양광 시장이 2027년까지 연평균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워크는 태국 에너지부가 후원하는 태국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의 주관사 아시아 에너지 리더십 포럼(SETA 2023)과 공동 개최했다. 첫 날인 17일 58건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고, 100만 달러의 합의각서(MOA) 1건, 1600만 달러 상당의 업무협약(MOU) 7건이 진행됐다.

또 전남도를 필두로 한 주관기관들은 태국월드뱅크(WBGT)와 글로벌에너지연계개발협력기구(GEIDCO), 태국국가연구위원회(NCCT) 등 주

요기관을 방문하며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전남기업의 태국 시장 진출 방안을 협의하는 등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 국장은 "이번 에너지워크 행사는 양국 교류와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내 에너지 기업이 태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부터 지역 에너지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매년 수출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나주 신도산단의 태양열 집열기 전문 기업인 ㈜금철이 아랍에미리트 에이아이 루아 트레이딩앤에너지(AIRuyahTrading&Eng)와 1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하는 등 에너지워크 행사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